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사회계 오후)

[문제 1]

차별과 불평등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가], [라]와 [나], [다], [마]로 나눌 수 있다. [가], [라]는 차별과 불평등이 전체 사회의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기능론적’ 시각이다. [가]에서는 힌두 지참금 관습으로 맺어진 불평등 관계가 인도 사회의 위계질서를 유지하는데 기능한다고 본다. [라]는 남녀 간 역할의 분화와 불평등 구조가 가족제도의 안정과 유지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나], [다], [마]는 차별과 불평등이 사회 구성원의 상대적 박탈감과 집단 간 갈등, 그리고 사회적 혼란을 유발한다는 ‘갈등론적’ 관점이다. [나]는 신체적 특징에 따른 차별로 생기는 상대적 박탈감과 갈등을 교실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다]는 외국인 차별 실태와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경고한다. [마]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대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하여 생활만족도가 저하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됨을 지적하고 있다.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사회계 오후)

[문제 2]

[바]는 존엄성을 갖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를 객체가 아닌 주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행위가 가해지는 경우에 존엄성이 위협받는다. 이것은 타인에 의해 주체가 '전시'되는 것이다. 주체와 타인의 만남이 상호적일 때에는 주체가 전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을 수단이나 사물로 취급하는 것은 존엄성을 해친다. 더욱이 특정한 '결함' 때문에 사람이 타인 앞에 전시되는 것도 존엄성을 위협하는 요소가 된다.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힌두 지참금 관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가]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을 차별하는 [나]를 비판할 수 있다. [가]는 카스트 제도가 힌두 정신과 인도 사회의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힌두 지참금 관습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은 자기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전시되는 도구일 뿐이다. 결혼을 남녀 쌍방 간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간의 우열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은 여성의 운명을 타인이 결정하는 것으로 존엄성을 위협하는 일이다.

한편 [나]는 눈 색깔로 학생들을 구별하여 학생들이 차별을 하거나 차별받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개인의 주체성을 박탈하고, 친구들과끼리의 상호작용을 가로막는다. 또한 눈 색깔을 신체적 결함으로 만들어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예시답안(사회계 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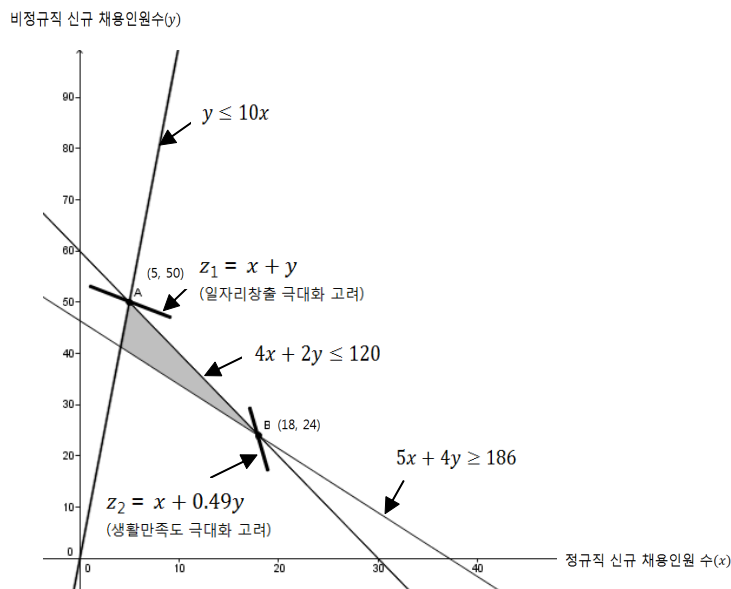
[문제 3]

x, y 를 각각 정규직 및 비정규직 신규 채용인원 수라고 할 때, [표1] 등에서 다음 부등식이 도출된다.

- (1) 월급 총액 제약: $4x + 2y \leq 120$
- (2) 최소 업무 요구량 제약: $5x + 4y \geq 186$
- (3)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 $\frac{x}{y} \geq \frac{1}{10}$, 즉 $y \leq 10x$

이때 일자리 수의 극대화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위 (1)~(3)의 부등식 영역에서 $x + y$ 의 최댓값을 구하는 것이다. 한편 [표2]로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활만족도 평균은 $1 \times 0.10 + 0.75 \times 0.16 + 0.5 \times 0.34 + 0.25 \times 0.40 = 0.49$ 이므로, 생활만족도 총량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같은 영역에서 $x + 0.49y$ 의 최댓값을 구하는 것이다.

이때 도형에 의해 $x + y$ 의 최댓값은 (5,50)일 때이며, $x + 0.49y$ 의 최댓값은 (18,24)일 때이다. 따라서 일자리 수의 극대화만을 추구할 때와 신규인력 생활만족도 총량을 극대화할 때의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 비율($\frac{x}{y}$)은 각각 0.1, 0.75로, 0.65(혹은 7.5배)만큼 증가한다.



이는 생활만족도를 고려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한 [마]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